



2021년 8월 한국상담학회 제 106회 통합학술대회

원의미 분석

- 창조의 의지를 탐색하는 길

박 성 수 (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명예교수
/로고스 카운슬링아카데미 대표)

I. 20세기 상담이론의 핵심적 결함

1. 20세기 과학적 학문으로서 상담이론

- 과학의 방법으로 이론 구축
 - > 결과: 인간에서 영혼을 배제 '영혼 없는 인간'
- 고대희랍철학의 영향: "영혼"이라는 개념을 쓰는 사례의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영혼은 능력을 가리킴.
 - 그 결과, 식물영혼, 동물영혼, 인간영혼들의 용어를 쓰게 됨.

I. 20세기 상담이론의 핵심적 결함

2. '영혼 없는 인간'의 상담 실제

- 인간을 가장 진화된 동물로 여김
-> 결과: 인간의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이기주의 세계를 만듦.
- 개인의 정서와 인지 중심의 치료는 극단적 자기중심의 인간으로 살게 함. 그 결과, 심리적 문제나 정신의학적 문제는 이전보다 더욱 더 증가하고 심각해짐.

II. 영혼을 가진 인격자의 길

- 융합적 학문으로서 상담이론

1. 융합적 학문으로서 상담이론 구축

- 과학의 방법을 수용하고 이를 인문학의 방법과 융합하여 새로운 인간관-“영혼을 가진 인간”-의 상담 이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.

-> 결과: 5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종교의 지혜와 2천년이전부터 발전된 철학의 지식을 반영한 새로운 상담 이론의 발전.

Ⅱ. 영혼을 가진 인격자의 길

- 융합적 학문으로서 상담이론

2. '영혼을 가진 사람'의 상담 실제

- 인간의 원아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'창조의 의지' 하나만을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음.

-> 결과: 원아가 가지고 있는 창조의 의지를 구상하고, 설계하고, 실천하는 인간으로 살아가게 됨.

Ⅲ. 인간의 문제

- 인격의 상징적 표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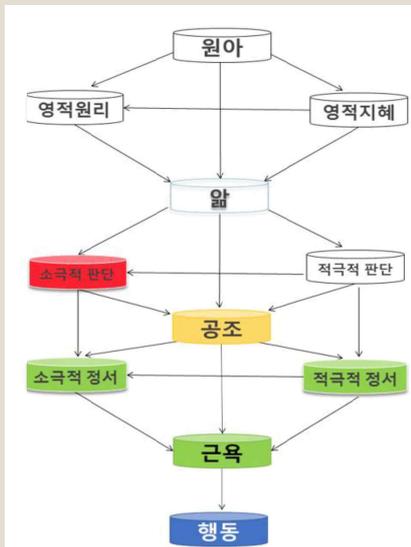


도표1: 인격의 구조와 역동

IV. 분석자와 내담자의 관계

- 하나하기(oneing)

1.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(근욕):무한과 무한자

- 무조건적 사랑·무한의 이해·끝이 없는 용서·
한이 없는 존경 등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게 무한과
무한자의 역할을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고 있음
- > 결과: 조건적이 되고, 유한하게 될 때, 무의식 속의
'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는 사람'이 사라지게 됨.

IV. 분석자와 내담자의 관계

- 하나하기(oneing)

1.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(근욕):무한과 무한자

-> 대처: ① 분석자는 내담자에게 '무조건적 외경'을
무한하게 베풀어주는 분석 관계가 구조적으로
안정화되는 것이 기본이 됨.

② 분석자는 내담자와 하나이며 또한 무한자와 하나로
연합되어, 분석자·내담자 그리고 무한자 삼자가 하나로
되어 있음을 내담자가 지각하는 분석 관계를 유지함.

V. 내담자의 인격 분석하기

- 원아의 의미 발견

1. 문제와 인격의 연결-분석하고 해석하기

- 호소문제와 진단문제를 인격의 구조나 역동에 연결하여 개별적으로 물론 유형별로 분석하고 해석함.

-> 결과: 자기자신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행위와 삶에 대한 통찰획득.

-> 대처: 내담자가 「통찰」을 획득하면 이것을 다시 해석하는 작업을 분석자가 함.

V. 내담자의 인격 분석하기

- 원아의 의미 발견

2. 인격의 구성요소들과 문제 속에 숨겨진 원아를 조명함.

- 인격과 문제 속에 은폐되어 있는 원아를 우측칼럼과 영적 영역을 중심으로 탐색하고 이어 좌측칼럼 그리고 끝으로 중앙 칼럼으로 분석하여원아를 모든 것들 속에서 조명하여 탐색해 냄.

-> 결과: 원아의 발견.

-> 대처: '창조의 의지'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문제와 병리 또는 약점이나 죄악속에도 있음을 관찰하도록 함.

VI. 타인과 대상의 구조와 역동 이해하기

- 대상의 의미 발견

1. '창조의 의지' ->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원초적 본능은 이것 하나 뿐임.

- 내담자 자신과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개인이나 조직의 원초적 의도 -> 창조와 연합과 생명.

-> 결과: 대상과 자아의 수용-> 무조건적 외경의 출발.

-> 대처: 무조건적 · 무제한적 그 밖의 무한이나 무한자들의 '끝없는 무조건적 사랑'에 대한 갈망을 관조하는 기회를 넉넉하게 가지는 것을 분석자가 설계함.

VI. 타인과 대상의 구조와 역동 이해하기

- 대상의 의미 발견

2. '무(nothingness)'와 '무한자(En Soph)의 역설적 관계 살펴보기.

- 무한자(無限者)는 영원자 또는 창조자라고 부르기도 하며 인간이 무한자와 관계를 맺으려면 무 또는 영(zero)의 상태가 될 때에만 가능함.

-> 결과: 사람이 '무'가 되는 길을 살펴보게 됨.

-> 대처: 무조건적 외경 · 공감적 이해 · 끝없는 배려 등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기회를 분석자가 제공함.

Ⅶ. 발견된 의미

- 해석하기의 다섯 단계

- 1단계: 사실적 의미해석.
- 2단계: 상징적 의미해석.
- 3단계: 실천적 의미해석.
- 4단계: 귀결적 의미해석.
- 5단계: 영적 의미해석.

Ⅷ. 21세기와 제3밀레니엄 상담의 과제

상담: 융합적 학문으로 발달하여
창조와 연합 그리고 생명력이
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제.